

제2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12일 (월) 오전 10시

제2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제2차 정례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박현주)

○의사팀장 박현주

(10시 개식)

지금부터 제23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명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원한 우리 8대 의회는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슬로건[slogan]으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해운대구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 데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입동이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곧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겨울철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과 생활 안정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섬세하게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 2 (제238회-개회식)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박현주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폐식)